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6. 01. 18. ~ 01. 24.

전남농업정보

69

VOL

- | 주간 기상전망
- | 농작물 장애 발생 및 농업시설물 관리정보
- | 농작물 재배 동향(관측정보)
-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 주요 농산물 거래 동향 및 주간전망
-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 정책 동향
- | 해외 농업정보
-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6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음
- ▶ 강수량은 평년(0~2mm)보다 많겠음

❁ 농작물 장애 발생 및 농업시설물 관리정보 9

- ▶ 올겨울 웃자란 양파 잘 살펴야
- ▶ 폭설대비 농업시설물 관리

❁ 농산물 재배 동향(관측정보) 12

- ▶ 한육우 사육과 공급 및 가격전망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3

❁ 주요 농산물 거래 동향 및 주간전망 15

- ▶ 도·소매 농산물 지역별 거래 동향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8

- ▶ 여수 거문도해풍썩 새해 첫 출하
- ▶ 순천시, 강소농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 ▶ 화순군 네잎클로버, 나눔에 대한 뜨거운 열정 실천
- ▶ 신안군, 1읍면 1농기계 임대센터 운영
- ▶ 유기재배 적합한 품종 『보림』, 품종보호출원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3

- ▶ 해남 옥천농협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으로
- ▶ 우리나라산 쌀의 중국 수출길이 마침내 열렸다
- ▶ 진례농협, 버섯 수출 300만불 탑
- ▶ 세계 속의 제주 키위 입지 굳히기 사업 주력
- ▶ 농협, 2015년 농식품 수출 3억 8천만불로 사상 최고

❁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33

- ▶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병해충 방제 및 시비 노동력절감 기술개발 결과
- ▶ 싱글·핵가족 위한 125g 한끼용 유기농쌀 키스미(Kiss 米) 개발
- ▶ 충북농기원, 벼 포트 재배 시범사업 인기 좋아
- ▶ 농협, 화학비료 가격인하로 농업경영비 1천 1백억원 경감
- ▶ 충북에서도 시설하우스 3모작 가능
- ▶ 영농 현장의 어려움, 『농사로』에서 해결 하세요
- ▶ 단동 및 연동온실 스마트 기술 적용
- ▶ 2016년 농업미생물 분양 개시
- ▶ 매운맛과 단맛의 조화, 재래종 고추 분양 시작
- ▶ 딸기 생산성 향상 현장컨설팅 강화로 해결
- ▶ 농촌진흥청 개발한 농업기술 77개 파급효과 9조원 기대

❁ 정책 동향 48

- ▶ 전남도, 중국 지향 전남발전 기본계획 수립
- ▶ 2015년산 공공 비축 미곡 매입가격 확정
- ▶ 농협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및 수출 활성화 방안 발표
- ▶ 설 앞두고 축산물 유통 안전성 높인다
- ▶ 농식품부, '제4차('16~'20)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

- ▶ 미국서 천연원료 사용한 농식품 인기 ↑
- ▶ 미국, 무살균 원유 활용 치즈 안전성 논란 가중
- ▶ 온라인으로 농식품 구매하는 일본 노년층 증가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01. 18.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마틴루터킹데이 연휴를 앞두고 쇼커링세가 물리며 2거래일 연속 하락세에서 반등에 성공함.
 - 옥수수 :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연휴를 앞두고 기술적 쇼커버링세 영향으로 상승 마감함.
 - 대두 :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1월물 마감에 상당한 거래물량에 하락한 대두박의 압박을 받으며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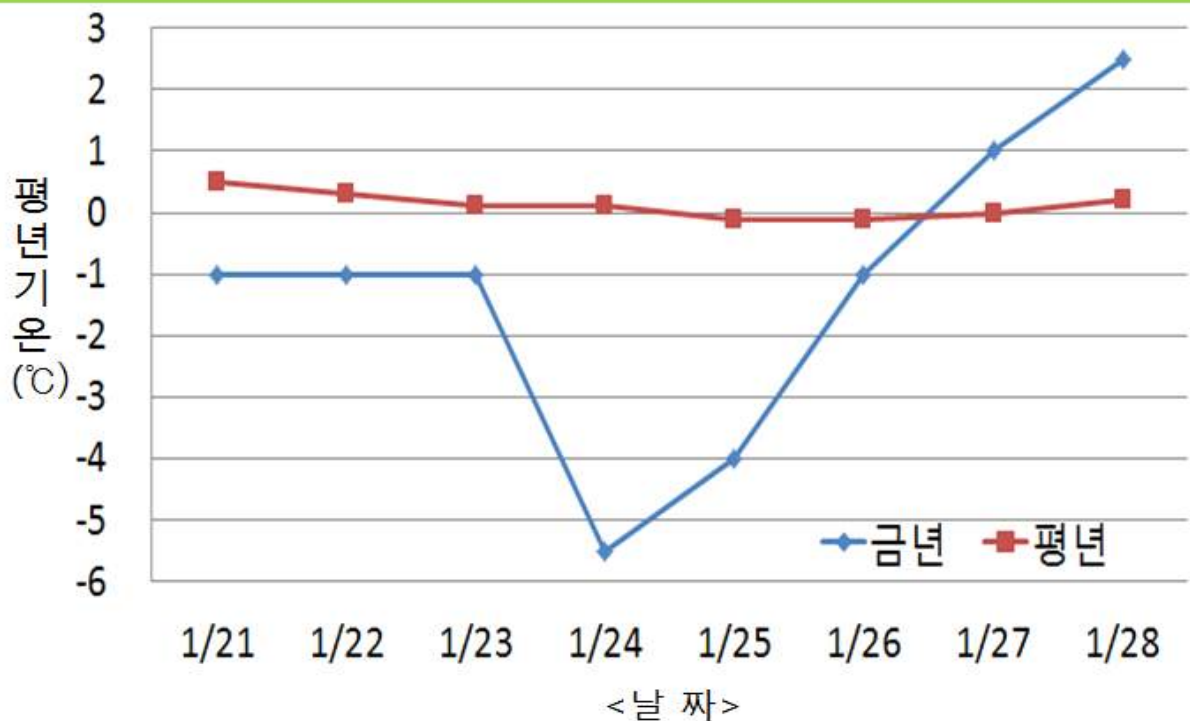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 · 日)

- ▶ 2016년 농식품 창업가 양성과정 운영 수강생 모집
- ▶ 2016년도 전남생명농업대학 신입생 선발
- ▶ “농업전망 2016 발표대회” 개최
- ▶ 2016년 재배할 벼 정부 보급종 신청 접수
- ▶ 디자인박람회조직위, 개최지 나주에 새 등지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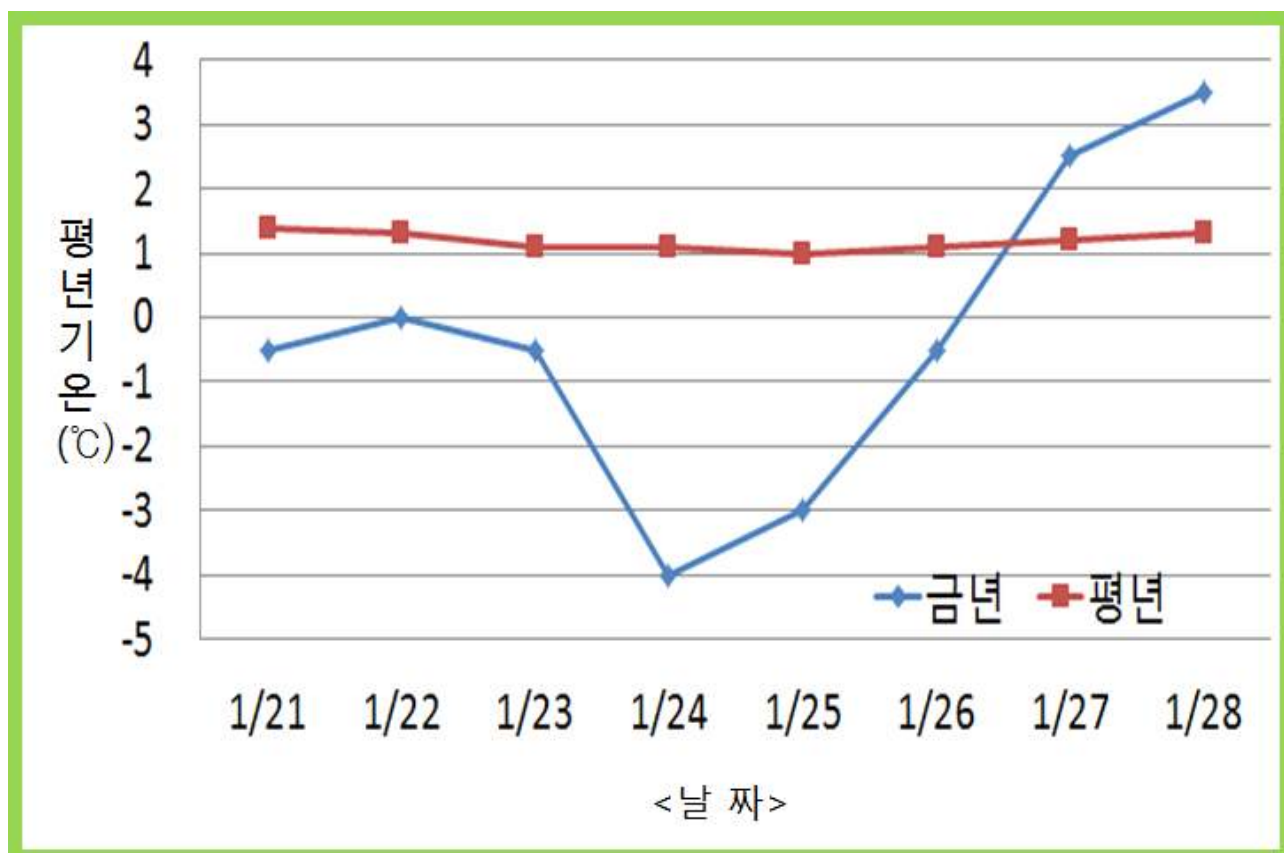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3	0.1	-1.4	2.1	4.7	-2.6	-4.6	-3.6	-1.1	1.2
1. 21.(목)	-1.0	0.5	-1.5	2.0	5.0	-3.0	-4.0	-3.2	-0.8	1.8
1. 22.(금)	-1.0	0.3	-1.3	3.0	4.7	-1.7	-5.0	-3.3	-1.7	1.7
1. 23.(토)	-1.0	0.1	-1.1	2.0	4.5	-2.5	-4.0	-3.5	-0.5	1.5
1. 24.(일)	-5.5	0.1	-5.6	-3.0	4.4	-7.4	-8.0	-3.5	-4.5	1.4
1. 25.(월)	-4.0	-0.1	-3.9	-1.0	4.4	-5.4	-7.0	-3.7	-3.3	1.2
1. 26.(화)	-1.0	-0.1	-0.9	3.0	4.6	-1.6	-5.0	-3.8	-1.2	0.7
1. 27.(수)	1.0	0.0	1.0	5.0	4.9	0.1	-3.0	-3.8	0.8	0.6
1. 28.(목)	2.5	0.2	2.3	6.0	5.0	1.0	-1.0	-3.7	2.7	0.7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0.3	1.2	-1.5	2.6	5.7	-3.0	-3.3	-2.0	-1.3	1.3
1. 21.(목)	-0.5	1.4	-1.9	2.0	5.8	-3.8	-3.0	-1.7	-1.3	1.8
1. 22.(금)	0.0	1.3	-1.3	4.0	5.6	-1.6	-4.0	-1.8	-2.2	1.8
1. 23.(토)	-0.5	1.1	-1.6	2.0	5.4	-3.4	-3.0	-2.0	-1.0	1.6
1. 24.(일)	-4.0	1.1	-5.1	-2.0	5.4	-7.4	-6.0	-1.9	-4.1	1.5
1. 25.(월)	-3.0	1.0	-4.0	0.0	5.5	-5.5	-6.0	-2.1	-3.9	1.2
1. 26.(화)	-0.5	1.1	-1.6	3.0	5.6	-2.6	-4.0	-2.3	-1.7	0.8
1. 27.(수)	2.5	1.2	1.3	6.0	5.9	0.1	-1.0	-2.1	1.1	0.7
1. 28.(목)	3.5	1.3	2.2	6.0	6.0	0.0	1.0	-2.0	3.0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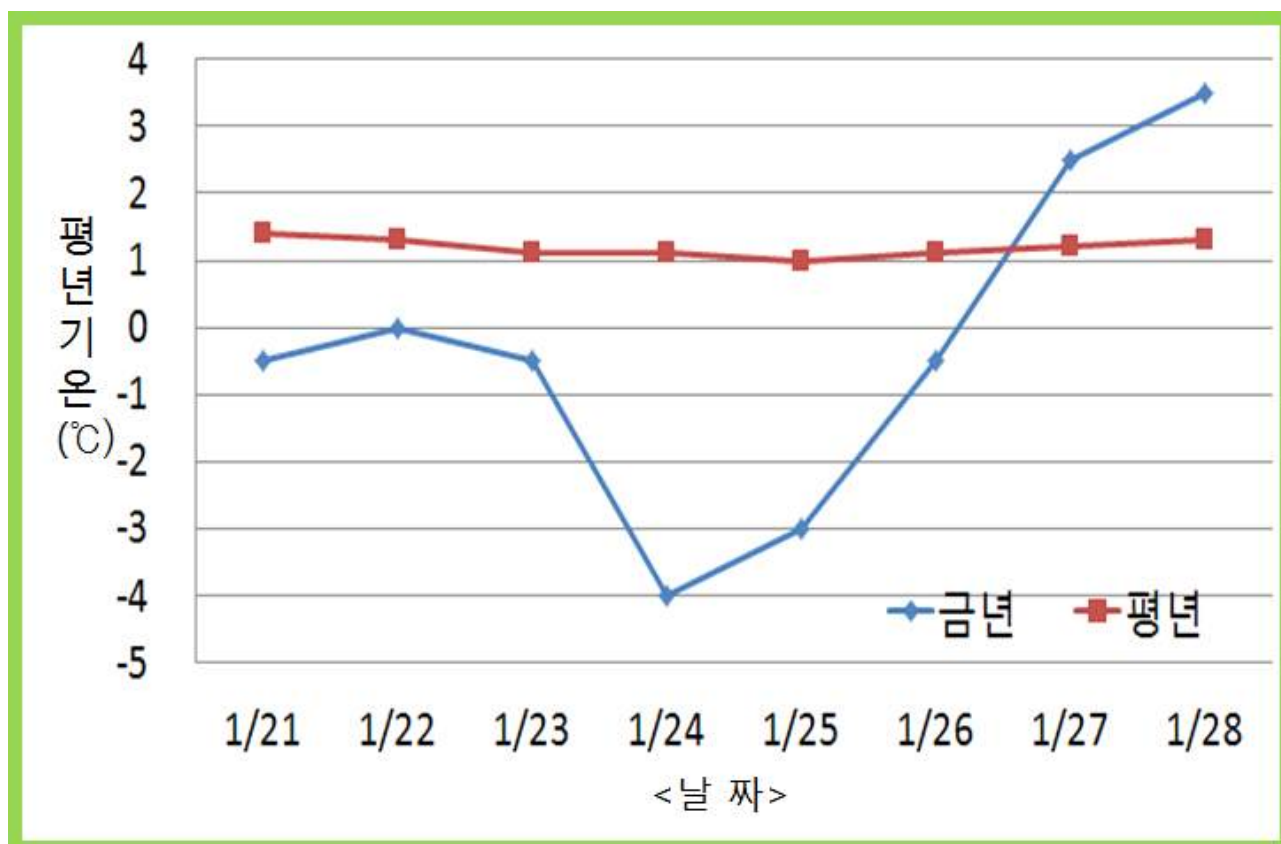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0.3	1.2	-1.5	2.6	5.7	-3.0	-3.3	-2.0	-1.3	1.3
1. 21.(목)	-0.5	1.4	-1.9	2.0	5.8	-3.8	-3.0	-1.7	-1.3	1.8
1. 22.(금)	0.0	1.3	-1.3	4.0	5.6	-1.6	-4.0	-1.8	-2.2	1.8
1. 23.(토)	-0.5	1.1	-1.6	2.0	5.4	-3.4	-3.0	-2.0	-1.0	1.6
1. 24.(일)	-4.0	1.1	-5.1	-2.0	5.4	-7.4	-6.0	-1.9	-4.1	1.5
1. 25.(월)	-3.0	1.0	-4.0	0.0	5.5	-5.5	-6.0	-2.1	-3.9	1.2
1. 26.(화)	-0.5	1.1	-1.6	3.0	5.6	-2.6	-4.0	-2.3	-1.7	0.8
1. 27.(수)	2.5	1.2	1.3	6.0	5.9	0.1	-1.0	-2.1	1.1	0.7
1. 28.(목)	3.5	1.3	2.2	6.0	6.0	0.0	1.0	-2.0	3.0	0.7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작물 장애 발생 및 농업시설물 관리정보

■ 올겨울 웃자란 양파 잘 살펴야!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강양수) 양파연구소가 도내 양파 주산지를 둘러본 결과 지난 초겨울에 높은 온도와 잦은 비로 옮겨 심은 양파가 너무 웃자랐거나 수분이 많아 습해를 입은 밭이 일부 발생하였다고 전했다.
- 실제로 본밭에 옮겨 심은 묘가 뿌리를 내리고 겨울을 나기 시작하는 11월과 12월 평균기온(합천기상대)이 6.6℃로 평년보다 2.2℃ 높았고, 강수량은 132mm로 평년보다 83mm 많았다.
- 이에 따라 양파연구소는 노지 월동양파의 생육 상황을 수시로 관찰하여 웃자람이나 습해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마련을 통해 피해 방지를 위한 월동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 올겨울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양파에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애로는 쌍구와 추대이다. 쌍구는 12월 상순 이전에 잎 수가 5~7매 일 때 11월 평균기온이 10℃ 이상으로 높으면 생장점이 2개로 나누어져 발생하게 된다. 추대는 겨울을 보낸 양파의 줄기 직경이 1cm 이상일 때, 2월 하순부터 3월 중순 동안 0~10℃의 저온에 1개월 이상 노출되면 꽃눈이 분화되어 발생한다.
- 쌍구는 2월 중순까지 2개로 나누어진 잎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조기에 확인이 가능하지만, 추대는 꽃눈이 분화하여 밖으로 나오는 시기가 4월 중순 이후이기 때문에 조기에 확인하기가 어렵다.

- 추대는 양파의 크기뿐 아니라 초봄의 온도와 영양 상태에 따라서 발생량이 다를 수 있다. 초봄에 꽃샘추위가 잦으면 추대 발생이 많지만 온도가 평년보다 높으면 발생이 줄어든다. 또한 식물체가 질소 성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없는 조건에서 추대 발생은 많아진다.
- 따라서, 표준재배법에 준하여 2월 중순이나 그 이전부터 웃비료를 주는 것이 좋으며, 토양 수분이 많은 밭은 가능한 일찍 관리기로 고랑을 파 주어 양분 흡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겨울 동안에 웃자란 양파는 노균병이나 춘부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밭을 잘 관찰하여 병 증세가 보이면 적기에 적용약제를 살포하여 2차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양파연구소 이종태 연구사는 “월동 중인 양파라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량과 품질에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기상 여건에 따른 알맞은 포장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출처 : 경남농업기술원



■ 폭설대비 농업시설물 관리

□ 폭설시 농업시설물 관리

- 비닐하우스 끈을 팽팽하게 당겨두어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도록 한다.
- 간이축사는 차광망이나 보온덮개 위에 비닐을 씌워둔다.
- 간이버섯재배사 보온덮개 위에 비닐을 씌워둔다.
- 인삼재배시설은 차광망을 미리 걷어 놓아 눈이 쌓이는 것을 막는다.



보온덮개 말아 올림



차광망 위에 비닐 덧씌움

□ 재해에 취약한 구 모델 관리 보강

- 농가지도형 단동하우스는 보강지주를 3~4m 간격 이내로 설치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는 보강지주를 2.5~3.6m 간격 이내로 설치

□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설계도를 준수하여 설치

- 내재해형 규격에 맞는 하우스 설치 : 자동화 3종, 단동형 18종
- 골조용 파이프는 한국산업규격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 사용

□ 내재해 기준 지정운영 계획

- 비규격 시설은 재해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출처 : 농촌진흥청

3. 농산물 재배 동향(관측정보)

한육우 사육과 공급 및 가격전망

- (사육전망) 금년 3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 전년 대비 감소 예상
 - 지난 12월 사육 마릿수 전전년 동월(275만 마리)보다 3.8% 감소한 266만 마리 전망
 - 금년 3월 마릿수 전전년(266만 마리)보다 3.0% 감소한 258만 마리 전망
- (공급전망) 금년 1~2월 쇠고기 공급량 전전년보다 감소 전망
 - 사육 마릿수 감소로 금년 1~2월 도축은 전전년보다 12~15% 감소 전망
- (가격전망) 금년 1월 이후 한우 도매가격 전전년 대비 강세 전망
 - 한우고기 공급 감소로 금년 1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전년 동월보다 23~37% 상승한 17,000~19,000원/kg(지육) 전망
 -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망치

단위 : 원/지육kg (만원/600kg)

구 분	지난 12월	금년 1월	금년 2월
2015년	17,440(627)	17,000~19,000원 (609~681)	1월 대비 약보합세
2014년	13,994(503)	13,845(498)	14,139(508)
평 년	13,856(496)	14,660(527)	13,771(495)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01. 18.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1/18)	1주일전 (01/1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6,200	36,200	36,220	41,400	42,267	↓ 12.6	↓ 14.4
	콩(백태)	35kg	149,000	149,000	148,200	139,000	182,800	↑ 7.2	↓ 18.5
	고구마(밤)	10kg	25,200	25,400	22,400	22,600	25,853	↑ 11.5	↓ 2.5
	감자(수미)	20kg	28,200	27,800	25,040	23,150	27,890	↑ 21.8	↑ 1.1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510	470	-	380	687	↑ 34.2	↓ 25.8
	양배추	10kg	4,900	4,100	3,520	5,000	7,440	↓ 2.0	↓ 34.1
	오이(다다기계통)	10kg	37,000	33,000	30,933	38,778	38,689	↓ 4.6	↓ 4.4
	애호박	8kg	32,000	26,400	26,720	26,750	28,903	↑ 19.6	↑ 10.7
	토마토	10kg	30,600	25,600	22,800	27,050	32,253	↑ 13.1	↓ 5.1
	당근	20kg	24,400	24,800	25,160	16,150	22,527	↑ 51.1	↑ 8.3
	건고추(화건)	60kg	784,000	776,000	800,000	820,000	874,000	↓ 4.4	↓ 10.3
	풋고추	10kg	50,800	32,800	46,760	46,400	58,400	↑ 9.5	↓ 13.0
	마늘(깐마늘)	20kg	150,000	147,000	143,000	96,000	110,600	↑ 56.3	↑ 35.6
	양파	20kg	33,200	33,200	34,000	10,400	16,950	↑ 219.2	↑ 95.9
	대파	1kg	1,970	1,970	1,994	1,200	1,533	↑ 64.2	↑ 28.5
	파프리카	5kg	55,200	33,800	20,480	30,700	34,607	↑ 79.8	↑ 59.5
	멜론	8kg	29,000	29,400	28,640	41,500	42,761	↓ 30.1	↓ 32.2
	방울토마토	5kg	19,600	16,800	13,280	16,200	19,040	↑ 21.0	↑ 2.9
	수박	1개	21,400	21,000	18,120	19,850	15,187	↑ 7.8	↑ 40.9
과 일 류	사과(후지)	10kg	36,200	36,800	35,200	36,934	54,789	↓ 2.0	↓ 33.9
	배(신고)	15kg	44,000	43,800	43,600	35,600	46,610	↑ 23.6	↓ 5.6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1/18)	1주일전 (01/1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9,000	529,000	530,000	524,000	562,600	↑ 1.0	↓ 6.0
	느타리버섯	2kg	10,800	10,600	11,800	11,850	13,157	↓ 8.9	↓ 17.9
	새송이버섯	2kg	7,800	7,800	8,520	7,800	9,217	- 0.0	↓ 15.4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938	7,716	7,720	6,568	6,283	↑ 20.9	↑ 26.3
	돼지고기(삼겹살)	100g	1,833	1,866	2,019	1,895	1,696	↓ 3.3	↑ 8.1
	닭고기	1kg	5,052	5,141	5,203	5,825	5,407	↓ 13.3	↓ 6.6
	계란(특란)	30개	5,534	5,596	5,449	6,016	5,763	↓ 8.0	↓ 4.0
	우유	1리터	2,548	2,548	2,550	2,551	2,387	↓ 0.1	↑ 6.7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01. 18.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860 천원	5,866 천원	4,571 천원	↓ 0.1	↑ 28.2
	거세	7,018 "	7,013 "	5,119 "	↑ 0.1	↑ 37.1
송아지 (6~7월)	암	2,656 "	2,630 "	1,809 "	↑ 1.0	↑ 46.8
	수	3,372 "	3,202 "	2,311 "	↑ 5.3	↑ 45.9
육우(600Kg)		3,670 "	3,620 "	3,468 "	↑ 1.4	↑ 5.8
젖소수송아지(7일령)		203 "	203 "	38 "	-	↑ 434.2
돼지(110kg)		373 "	341 "	351 "	↑ 9.4	↑ 6.3
육계(원/kg)		1,585 원	1,588 원	1,643 원	↓ 0.2	↓ 3.5
계란(원/특란10개)		993 "	997 "	1,301 "	↓ 0.4	↓ 23.7
오리(원/kg)		1,667 "	1,667 "	2,167 "	-	↓ 23.1

※ '14년 경연비(천원) : 송아지 2,103, 큰소 4,728, 돼지 292/110kg, 육계 1,277원/kg, 오리 1,944원/kg(생산비), 계란 1,006원/10개, 우유 667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5. 주요 농산물 거래 동향 및 주간전망

□ 도매, 채소류/배추(월동), 2016-01-15, 부산

- 전남 진도·해남지역에서 주로 출하됨.
- 명절 전 소비 비수기와 학교 방학 등으로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부진에 따른 산지 출하량 조절로 보합세.
- 도매가격은 월동배추 1kg당 상품 500원 중품 400원선에 거래됨.
- 향후에는 명절 준비에 따른 소비 증가로 강보합세 전망

□ 소매, 채소류/상추(적), 2016-01-15, 대구

- 경북 성주·고령·김천지역에서 출하됨.
- 주산지 생육지연으로 산지출하물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오름세에 거래됨.
- 소매가격은 100g 기준 100원 오른 상품 800원, 중품은 700원 선에 거래됨.
- 향후 겨울철 주산지 작황부진에 따라 강보합세 전망

□ 소도매, 채소류/호박(애호박), 2016-01-15, 대전

- 주산지는 전남 구례군·광양·경남 진주·고성군 등지임.
- 겨울철 주산지 생육상태가 저조하여 출하량 감소(18톤)로 오름세
- 도매가격은 전일대비 8kg 상자당 3,000원 올라 상품은 30,000원, 중품 27,000원, 주키니는 상품16,000원, 중품은 14,000원선에 거래되었음.
- 당분간은 주산지 생산량 감소로 오름세 전망됨.

□ 도매, 채소류/호박(애호박), 2016-01-15, 대구

- 경북 고령·안동·예천지역에서 출하됨.
- 산지의 상품성이 하락하며 출하량이 감소한 가운데 국거리용 부재료 소비 증가로 오름세에 거래됨.
- 도매가격은 8kg 기준 2,000원 오른 상품 28,000원 중품은 24,000원 선에 거래됨.
- 향후 수요에 비해 공급부족이 예상되어 강보합세 전망

□ 소매, 채소류/풋고추(청양고추), 2016-01-15, 광주

- 광주광역시·전남 나주·경남 진주 등지에서 주 출하됨.
- 잦은 흐린 날씨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가운데, 국거리용 등의 부재료로 꾸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오름세에 거래됨.
- 전통시장 소매가격은 100g에 300원 오른 상품 1,500원 중품 1,400원 선에 거래됨.
- 향후에는 별다른 소비증가 요인이 없고, 설 성수기를 앞둔 관례적인 소비심리 위축으로 약보합세 전망

□ 도매, 채소류/풋고추(청양고추), 2016-01-15, 대전

- 주산지는 경남 진주·광주·전남 나주 등지임.
- 기온하강에 따른 주산지 생산량 감소로(1톤) 반입량이 적어 오름세
- 도매가격은 10kg 상자당 10,000원 오른 상품은 130,000원, 중품은 120,000원에 거래되었음.
- 기온하강에 따른 주산지 생산량 감소로 당분간은 고가에 거래될 전망이다.

□ 소매, 채소류/파프리카, 2016-01-15, 광주

- 전남 광양·전북 남원 등지에서 주 출하됨.
- 출하지가 한정되어 있는데다, 기온하강에 따른 주산지의 생육여건 악화로 반입물량이 감소하면서 강보합세에 거래됨.
- 전통시장 소매가격은 200g에 200원 오른 상품 1,500원, 중품 1,400원 선에 거래됨.
- 향후에도 동절기 작황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강보합세 전망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6.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여수 거문도해풍쭈 새해 첫 출하

-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올라 -

- 예년 같으면 1월 중순이 지나야 맛볼 수 있던 거문도해풍쭈가 올해는 따뜻한 날씨 덕에 새해 시작과 함께 식탁에서 맛볼 수 있게 되었다.
- 거문도해풍쭈는 2014년에 이어 작년에도 ‘대한민국 농식품 파워 브랜드’에 선정되면서 여수를 대표하는 특산품이 되었다. 거문도의 청정지역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나 고유의 향이 짙고 영양이 풍부하며 식감이 부드러워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 약 200여 농가가 43ha에서 연간 500여톤의 해풍쭈를 재배하고 있다.
- 청정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빠른 출하시기로 인해 전국 최고의 쭈 브랜드로 자리잡은 거문도해풍쭈는 타 지역의 쭈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받고 있어 지역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 어획량과 관광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문도 지역민들에게 해풍쭈 재배가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거문도해풍쭈는 친환경인증(무농약)을 획득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 농산물이다. 거문도해풍쭈영농조합 홈페이지(www.gmdssuk.com)와 시내 로컬푸드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판매가는 2kg 한 상자에 2만 3,000원 선이다.
-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거문도해풍쭈는 2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파워브랜드’ 인증을 받은 전국 최고의 쭈인 만큼 상품성과 성장 가능성이 뛰어나다”면서 “앞으로 해풍쭈 브랜드 관리는 물론 관광산업과 연계한 관련 산업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여수시

■ 순천시, 강소농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 순천시는 2016년 1월 12일부터 2016년 4월 1일까지 농업인과 농업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 53명을 대상으로 순천시 농업교육관 및 농산물가공교육장에서 2016년 식품가공기능사 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농산물 가공에 대한 농업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산물의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 폭락에 대비해 우리지역 6차 산업을 이끌어 갈 식품가공 전문 강소농 육성을 목표로 한다.
- 교육내용은 식품화학, 식품위생론, 식품가공 및 기계 이론과 식품가공에 필요한 기계 조작방법, 다양한 농수축산물 가공 제조 실습으로 진행되며 특히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향후 자격증 취득 농업인에게는 현재 건립 추진 중에 있는 로컬푸드 가공센터와 창업보육센터에서 시제품 생산과 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교육도 실시한다.
- 농업인과 농업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 일정은 인터넷으로 “순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061-749-8693)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순천시

■ 화순군 네잎클러버, 나눔에 대한 뜨거운 열정 실천

- 화순군 4-H연합회 과제 학습포 운영 쌀 1,440kg 기부 -

- 전남 화순군 4-H연합회(회장 김호영)는 지난 11일 화순군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 가정을 위한 330만원 상당의 사랑의 쌀 1,440kg을 기증했다.
- 이날 전달된 쌀은 4-H연합회 회원들이 벼 이앙부터 수확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과제 학습포를 직접 경작해 생산한 것으로 더욱 뜻 깊다.
- 넉넉지 않은 농촌의 현실 속에서도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불우이웃돕기 실천에 나선 화순군 4-H연합회는 '좋은 것을 더욱 좋게, 실천으로 배우자'라는 4-H 슬로건처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해 지역농업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김호영 회장은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서로 의지하며 협력해 나가는 우리 4-H연합회는 올해도 지·덕·노·체의 4-H이념 실천을 통한 지역사랑 운동에 앞장 서 화순군 4-H연합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한편, 화순군 4-H연합회는 본부·영농·학교4-H회 16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새로운 영농기술 습득 및 영농기반 조성과 미래 영농을 위한 조직 활동 등 농업·농촌 발전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 출처 : 화순군

■ 신안군, 1읍면 1농기계 임대센터 운영

- 팔금도 농기계 임대센터 준공 -

- 「섬들의 고향」 신안군이 농기계 임대센터 사업을 섬마다 1개소씩 전 읍면을 운영하여 농업인들로부터 크게 환영받고 있다.
- 신안군은 1월 13일 팔금면에서 농업인단체 및 관내 독농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기계 임대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 이번 팔금면 농기계 임대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농업이 없는 흑산면을 제외한 전 읍면(13개소)에 농기계 임대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그동안 소외받던 신안군 섬지역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팔금면 농기계 임대센터는 국비 3억원, 도비 9천만원, 군비 2억 1천만원 등 총 6억원을 투입하여 건물 395㎡, 농기계 24종 52대, 관리장비 3종을 배치하였으며 구입가격의 0.2~0.4%의 저렴한 임대료로 농가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빌려 쓸 수 있는 농업인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
- 또 신안군은 금년에도 12억원으로 밭작물 농기계 및 여성전용 농기계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마늘·양파·대파 등 양념채소 농기계 임대사업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일손부족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많은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임대와 관련된 건의사항과 불편사항을 수렴해 임대센터를 찾는 모든 농가가 만족할 때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 출처 : 신안군

■ 유기재배 적합한 품종 『보림』, 품종보호출원

- 전남농기원 차 유기재배농가 숙원 내병충해 『보림』 품종 육성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그동안 차나무 유기재배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병해충인 탄저병과 차응애에 강한 품종인 『보림』을 육성하여 지난해 12월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을 마쳤다고 밝혔다.
- 보림은 수형이 중간형으로 수세가 강하고 기호성분인 카테킨함량이 100g당 2,050mg으로 높았고, 총질소와 비타민C 함량이 기존 품종보다 높아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병충해에 강해 친환경 유기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기존 재래종 차나무를 대체할 유망 품종으로 기대된다.
- 보림은 우리나라 차나무 자생지 250여 지역 중 1997년 전남 장흥군 보림사 주변 야생 차밭에서 종자를 수집하여 2006년~2009년까지 특성검정과 2011~2015년까지 5년간 보성·하동·제주 등 차나무 주요 재배지에서 지역적응시험을 거쳐 육성된 우수한 품종이다.
- 전남지역 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차 재배농가들에 대한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차산업 연구소는 2001년부터 육성한 참녹·보향·명녹 등 신품종 묘목을 대량 증식하여 지금까지 10만주(5.0ha용)를 농가에 공급하여 신품종 차밭 조성을 지원하였고 또한 조기성원화를 위한 차나무 재배기술 개발을 농가에 꾸준히 컨설팅하고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윤창용 연구사는 전남 차의 국내외 경쟁력 제고와 녹차시장 개방 이후 외국 고급 녹차와의 무한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기재배 품종 차밭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전남 차의 세계화를 위한 명차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인 품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7.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해남 옥천농협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으로

- 중국 검역기관 실사 통과...고품질 전남쌀 중국 수출창구 역할 기대 -
- 전라남도는 대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으로 해남 옥천농협을 비롯한 전국 6개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은 중국 검역기관에서 지난 해 현지실사를 통해 이번에 승인 고시됐다.
- 선정 업체는 해남 옥천농협을 비롯해 경기 이천 남부농협, 강원 철원 동송농협, 충남 서천군농협, 충북 청주 광복영농조합, 전북 군산 (유)제희다.
- 농식품부에서는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으로 선정된 6개 업체 합동으로 상해 지역에 1월 말 첫 수출을 목표로 포장재 등 준비사항을 추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전라남도도 농식품부의 첫 수출 일정에 맞춰 수출용 쌀 포장재 중국어 라벨 제작과 쌀 위생검사를 완료하고, 롯데마트 등 유통업체 및 수출 대행업체를 통해 중국 내 바이어 발굴과 판매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 해남 옥천농협에서는 첫 수출 물량으로 5톤을, '한눈에 반한 쌀' 5kg 소포장 제품으로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한눈에 반한 쌀'은 농식품부가 2003년부터 주최한 전국 12대 브랜드쌀 평가에 2013년까지 10회나 선정됐고 이 가운데 최우수상을 3회 수상하는 등 밥맛과 품질을 인정받은 브랜드로 중국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해남 옥천농협이 중국 수출용 가공공장으로 선정된 것은 중국 검역단의 현지 실사에 대비해 전라남도와 해남군, 농림축산검역본부 광주사무소가 합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행정적 지원을 다하고 전남쌀의 우수성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 전종화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이제 중국에 전남쌀 수출길이 열린 만큼 중국 부유층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을 강조한 전남의 고품질·유기농쌀 위주로 수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우리나라산 쌀의 중국 수출길이 마침내 열렸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중국측이 한국 내 수출용 쌀 가공 공장(6개소*)을 '16.1.13일자로 최종 공고함에 따라 국산 쌀의 중국 수출을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식물검역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이날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 경기 1개소(이천남부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충북 1(광복영농조합법인), 충남 1(서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전북 1(유한회사 제희), 전남 1(오케이라이스센터), 강원 1(동송농협)
- 농식품부는 '09년 중국측에 쌀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래, 그간 농식품부장관 등 고위급 회의, 검역당국간 협의 등을 진행해 왔으며,
- 지난해 9월 한·중 정상회담 시 대통령님께서 의제로 말씀하였고, 10.31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장관이 국산 쌀 수출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이후 남아 있는 후속 검역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끝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게 된 것이다.

* 수출검역요건에는 합의하였으나, 수출용 가공공장 등록 및 중국검역관 현지실사 등 후속 검역절차 마무리가 필요한 상태

- 검역 TF팀을 구성('15.11.)하여 수출용 쌀 가공공장 선정 심의회 개최 및 후보지 추천(11.18.), 가공공장 요건(중국 기준) 적합여부 사전점검(2회), 중국 검역관 현지실사 대응(12.22.~29.), 국산 쌀 중국 수출검역요령(검역본부 고시)제정시행('16.1.7.)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 이번 대중국 쌀 수출검역 협상 완료는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의 결실로,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국 시장으로 우리 쌀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또한, 쌀 TRQ 물량 중 약 절반을 중국 쌀이 차지함에 따라 그간 지적되어 온 양국간 쌀 교역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국산 쌀 수입현황(출처 : aT) : ('12) 166천톤 → ('13) 151 → ('14) 205 → ('15) 219

○ 농식품부는 앞으로 수출 상황에 따라 대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추가 등록을 중국측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농식품부는 대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이하 가공공장)이 등록됨에 따라 '16년 업무보고의 연장선상에서 쌀 수출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가공공장 등과 협의하여 빠르면 이달 중 60톤 가량을 중국에 첫 수출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는 검역협상 타결('15.10.31.) 이후 대중국 쌀 수출추진 TF ('15.11.13.~)를 운영하면서 등록예정 가공공장, 무역유통업체와 함께 수출절차 안내, 라벨링 작업 등 사전 수출 준비를 추진해왔다.

- 이날 가공공장들은 등록 즉시 검사기관에 위생검사 의뢰 등 쌀 수출에 필요한 준비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서류포장재 준비 등 수출에 필요한 작업이 완료되면 6개 가공공장이 합동으로 국내 쌀의 첫 중국 수출식을 추진한다.
- 농식품부는 가공공장들이 공통 포장재 또는 로고를 활용토록 해 한국산 쌀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우리 쌀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16년, 중국에 우리 쌀 약 2천톤 가량 수출을 목표로 잡고 있다.
- 아직까지 중국의 중단립종 수입쌀 시장 규모는 천톤 미만으로 크지 않으나, 한류열풍, 기능성 쌀에 대한 관심 등을 기회로 우리 쌀의 수출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중국 도시별 소비자 선호(식미포장 등) 조사 및 우리 쌀의 고급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관측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 중국의 쌀 수입권한(쿼터)을 확보한 쌀 전문 바이어와 수출업체 간 매칭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 중국 백화점(연태시 따웨이청 한국관), 온라인 몰(알리바바 등), 현지 TV 홈쇼핑(CJ) 등 입점을 지원하는 한편, K-Food Fair안테나숍 등을 활용한 현지 홍보도 강화한다.
-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해 미국·호주 등 46개국으로 2,238톤 (약 5,154천불)의 쌀을 수출한 바 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진례농협, 버섯 수출 300만불 탑

- 국내외 우수농산물 인증 받아 2014년 200만불 이어 성장세 -
- 경남 김해 진례농협(조합장 김천겸)이 농산물 수출 300만달러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며 버섯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 진례농협은 칠곡새송이버섯농장(대표 윤철욱)과 손잡고 느타리와 새송이버섯을 유럽·동남아·미국·호주 등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0만달러 어치를 수출하는 성과를 이뤘다.
- 진례농협은 조합원들의 주 재배작목이 벼와 단감인 가운데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버섯을 적극 육성하며 수출추진 역량을 강화해왔다.
- 이로써 2014년 200만불 수출탑에 이어 지난해 300만불 탑을 달성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 진례농협이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새송이버섯은 무농약인증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았다. 유럽 등 수출국의 요구에 맞춰 지난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농산물우수관리(Global GAP) 인증까지 획득하며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다.
- 글로벌 잭 인증은 재배에서 수확기까지 농산물의 이물질·농약·유해균 등 위해요소 관리, 농가의 안전성, 작업자의 건강 등을 고려한 235개의 까다로운 인증기준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인증이다.
- 윤철욱 대표는 “국제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음으로써 경쟁력 있는 버섯산업의 자리매김은 물론 수출버섯의 고급화와 차별화를 통해 어려운 시장여건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철저한 생산성·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버섯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진례농협은 수출농가가 지속적으로 품질을 높이고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김천겸 조합장은 “세계 경기 불황으로 전반적인 수출시장 분위기가 침체됐지만 버섯은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해외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어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고품질 버섯을 안정적으로 생산해 해외에서 김해 농산물이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농가와 합심해 올해 400만불 탑 달성에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 출처 : 전북농업기술원

■ 세계 속의 제주 키위 입지 굳히기 사업 주력

- 품종 다양화·꽃가루 자급화·수출 확대 등 제2과수로 굳히기 -
- 제주지역 키위 품종 다변화를 통한 제2소득 과수 자리를 확고히 굳히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강성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육성품종 한라·제시골드 등을 싱가포르 등 5개국으로 수출하는 한편, 극대과인 ‘메가그린키위’의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있어 올해에는 국내 키위 품종 다변화와 수출 활성화에 힘쓸 방침이다.
- 농업기술원은 올해는 키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358백만원(국비 253, 도비 105)을 키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키위 품종 다변화를 위해 유전자원 도입하고 2~5년 차까지 특성구명을 통해 제주에 맞는 품종을 선발하고 6~7년 차까지 농가 실증시험사업을 실시한 후 8년 이후인 2020년부터는 농가 보급한다는 로드맵을 완성했다.

- 지금까지 품종다변화를 위해 레드비타 등 국내·외 다양한 키위 유전자원 23개 품종을 도입해 농업기술원과 농가 현장에서 특성을 검토하고 있다.
- 올해부터는 7개소에 제조기, 냉동기 등 꽃가루 조제 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10개소에 키위 동해 예방 보온매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31kg정도 생산하던 키위 꽃가루를 2017년까지 130kg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수입에만 의존하던 키위 꽃가루 자급 기반을 마련해 외화 유출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 또, 다양한 기술을 투입해 키위 품종별 수확기 판별 기술도 정립하여 농업인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적기에 수확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청정제주 키위 산학연협력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현장기술 지원과 한라골드 등 제주 품종을 비롯해 제주에서 생산한 키위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도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다.
- 농업기술원은 다양한 키위 품종을 보급해 소비욕구를 충족하고 수출과 내수 시장 경합 없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출처 : 제주농업기술원

■ 농협, 2015년 농식품 수출 3억 8천만 불로 사상 최고!

- 농협, 2015년 농식품 수출 3억 8천만 불로 사상 최고! -

- 농협(회장 최원병)은 세계시장의 교역둔화, 일본 엔저현상 지속 등 시장여건 악화 속에서도 지난해 농협 농식품 수출사상 최고치인 3억 8천만 불(전년 대비 13% ↑)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농협의 수출 증대는 농협중앙회의 전폭적인 수출확대 지원과 수출농협들의 수출에 대한 열정이 시너지가 되어 이루어낸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 국가별로는 한국 농식품 수출 주력국인 일본의 경우 엔화환율이 2013년 대비 17%, 2014년 대비 6% 하락한 상황에서도 전년보다 7% 증가한 1억 4천 4백만불을 달성하였다. 미국은 지난해 대비 14% 증가한 60백만불, 중국(홍콩 포함)은 11% 증가한 5천 9백만불, 동남아시아는 38% 증가한 4천 7백만불을 거양하였다.
- 지난해 농협은 수출확대를 위하여 고품질 수출품목 생산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였다. 신선농산물의 경우 수출창구 단일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 확대를 위해 수출 연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파프리카·배·단감 등 10개의 수출연합조직을 육성 및 지원하고 있다.
- 파프리카의 경우 전통적 수출시장인 일본의 엔저현상 지속에 대응하여 고품질의 상품개발과 거래처 확대에 힘쓴 결과 전년보다 9% 증가한 8천 4백만불을 수출할 수 있었다.
- 배는 대미 배 수출연합을 결성하여 aT 등과 함께 미국현지인 시장공략을 위한 통합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대미 배 수출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천안배농협(충남 천안, 조합장 박성규)은 배 수출농협 최초로 수출 1천만불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 가공식품의 경우 신규 수출품목 발굴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출품목의 생산부터 현지 마케팅까지 일괄 지원하는 인큐베이션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였다.
- 쌀 가공제품과 스낵 김을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전문적으로 육성한 결과 국내산 쌀을 활용한 떡의 경우 유럽·중동 등 지역에 60만 불을 수출하는 쾌거를 올려 국내산 쌀 소비에도 기여를 하였다. 스낵 김은 해외시장에 통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에 힘쓴 결과 올해 1월부터 캐나다로 첫 선적할 예정되어 있는 등 1백만불 이상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수출품목 다양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2월에는 서귀포 농협과 함덕농협의 한라봉(13톤), 천혜향(11.5톤)을 미국으로 첫 수출 하였고, 한·중 FTA 검역협상 완료에 발 맞춰 10월에는 최초로 국내산 포도 6톤을 중국으로 수출하였다. 한국 포도는 현지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올해 대 중국 포도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품목 육성 및 다양화 노력 이외에도 일본에 집중되어 있는 농식품 수출국 다변화를 위하여 잠재 수출국에 대한 시장개척을 추진한 결과, 2013년까지 51%의 비중을 차지하던 일본의 비중이 38%로 낮아지는 대신 동남아시아 등의 수출 비중이 높아졌고 유럽·중동 등 신규 수출국도 늘어나는 등 체질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 특히 미래 농식품 수출의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는 할랄시장 진출을 위하여 할랄인증 품목을 52개까지 확대하고 말레이시아, 두바이 등에 대한 프로모션을 집중한 결과 전년 대비 100% 성장한 1천 2백만불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 농협은 2015년에 이어 올해에도 농협 농식품 수출목표 4.2억불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출농협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현장 기동대를 더욱 활성화하고, 신규 수출 품목육성을 위한 인큐베이션 사업과 국가별 맞춤형마케팅을 추진하고 수출생산조직 육성을 확대하는 등 한국 농식품의 세계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또한 한·중 FTA협상 타결에 따라 대 중국 수출 토대가 마련된 만큼 올해에는 14억 중국 시장을 겨냥한 수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실시 할 방침이며, 특히 쌀·삼계탕·김치 등 전략 품목 수출을 위한 상품개발과 프로모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농협중앙회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식품 수출은 국가핵심 농정 과제이며, 농협 경제사업활성화의 주축사업”이라며, “올해에도 농식품 수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우수한 국산 농산물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협중앙회



8.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병해충 방제 및 사비 노동력절감 기술개발 결과

- 벼 조기 및 이모작재배 병해충방제 노동력 절감 기술 개발 : 못자리 1회 관주처리
 - 비용 및 살포시간 절감 : 비용 32.4천원(관행대비 12%), 살포시간 90초(관행 대비 95%)
- 벼 이앙재배 비료주기 노동력 절감기술 개발 : 이앙과 동시에 비료주기
 - 노동력 및 수량성(10a) : 34분 20초(관행대비 12% 절감), 584kg(관행대비 6% 감소)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싱글·핵가족 위한 125g 한끼용 유기농쌀 키스미(Kiss 米) 개발

- 전남 보성군 우리원 강선아 대표 -

□ 보성 마동마을 유기농 2세 ‘처녀농군’

- 보성군 별교읍 마동마을에 사는 강선아(30)대표는 6년 전부터 생명농법의 권위자인 아버지 고 강대인씨의 대를 이어 유기농법으로 쌀농사를 짓고 있는 “처녀농군”이다.
-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던 그녀는 유기농업 연구에 몰두하던 부친이 단식기도 중 별세하게 되면서 독일유학의 꿈을 접고 유기농 쌀농사에 자신의 인생을 걸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 요즘 강 대표는 아버지에게 평소에 배운 그대로 유기농 쌀농사를 짓는데 열심이다. 화학비료와 제초제 대신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로 병해충을 없애고, 잘 썬 퇴비와 깻묵으로 지력을 돋우며 맛 좋은 유기농 쌀을 재배하고 있다.

□ 맛춤형 유기농 미니쌀 “키스미” 개발

- 그녀의 유기농 벼농사 첫 작품은 자연과 달콤한 입맞춤 유기농 100% ‘키스미(Kiss 米)’다. ‘키스미’는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창업지원사업으로 한번에 많은 분량의 밥을 할 필요가 없는 20~30대 싱글, 맞벌이가정, 식사시간이 각기 다른 핵가족과 같은 1인분의 밥만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위한 맛춤형 한끼용 미니쌀로 그녀가 개발한 첫 작품으로써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가구의 수가 20% 내외로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가 예상된다. 강 대표는 이들에게 1인용 소포장 쌀을 제공함으로써 더 이상 혼자 밥을 지어 먹는 일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 주고 싶어 ‘키스미’를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 ‘키스미’는 봉지를 개봉하여 한 두 차례 행군 후, 1인분 분량에 맞는 물과 함께 소형전기밥솥에 취사를 하거나, 1인 분량의 쌀과 물을 1인 밥솥용기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15분여간 조리하면 갓 지은 맛있는 밥을 맛볼 수 있다고 한다.
- 또한 1kg세트는 한끼니용 125g 소포장쌀 8포로 구성되어 있고, kg당 판매가격은 백미는 6,500원, 오색미는 9,500원으로 시중 일반쌀에 비해 3~4배정도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 특히 기능성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유기농 녹미·적미·흑향미 등의 오색쌀을 활용하여 세트를 구성함으로써 다른 제품과 차별화를 시도 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충북농기원, 벼 포트 재배 시범사업 인기 좋아

- 종묘비 51%·상토비 44% 절감, 친환경·이모작 재배에 적합 -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차선세)은 “지난 2년 동안 도내 4개소에서 새로운 벼 포트묘 재배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고 밝혔다.
- 벼 포트묘 재배는 범씨를 포트상자에 파종하여 35~40일 동안 25~30cm 정도 묘를 키워 3.3m²당 50주 내외로 넓게 심는 방법으로 이앙 초기부터 뿌리 내림이 빠르고 튼튼하며 친환경재배와 2모작 재배지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특히 관행 기계이앙재배 대비 종묘비 51%, 상토비 44%가 정도가 절감되고 생산량도 5%정도 증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병해충 피해가 적고 도복에도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2016년도 도내 4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술보급의 타당성을 검토 후 문제점이 없으면 시책사업으로 전환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충북농업기술원

■ 농협, 화학비료 가격인하로 농업경영비 1천1백억원 경감!

- 올해 화학비료 가격 약 17% 인하 ... 대표적인 요소비료는 10년 전 가격 수준 -

- 농협(회장 최원병)은 13일 2016년 화학비료 가격을 약 17% 인하하여 공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농가 사용량이 가장 많은 요소 비료의 경우 2007년 가격 수준인 9,100원(20kg포)으로(전년 대비 20.9%↓), 이로 인해 올해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전망이다.
- 농협에 따르면 비료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환율 상승 시 부담이 크다. 올해에는 전년 대비 환율은 상승하였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가격인하를 추진하였으며, 전국 1,900여개 농협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통한 물량결집과 함께 입찰 참여업체에 대한 메리트 제공으로 경쟁을 유도한 결과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하게 되었다.
- 특히 농협은 시비처방에 의한 맞춤형비료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흙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비료 사용량 감소 유도를 통한 농가 부담 경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왔다.
- 농협 관계자는 이번 가격인하로 약 1천1백억 원의 농업경영비가 절감되며 이는 농가 호당 약 9만8천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농가호수 : 1,121천호 기준('14년말, 통계청)

- 한편, 이번 가격인하 정책으로 국내 비료시장과 유사한 일본의 비료 가격과는 더욱 큰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비료는 일본 요소가격의 59%, 21복비는 35% 수준('14년 기준)

- 농협의 비료 구매방식은 대내외적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비료 해외조사 보고서(2012.3)」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은 화학비료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유통경로, 공급제도 등의 차이로 한국이 훨씬 저렴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 또한 2013년 일본 농림수산업성 관계자의 한국 농협 방문 시에도 “농협이 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필요 물량을 확보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체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듯이 지속적인 구매제도 개선을 통해 오늘과 같은 큰 폭의 가격인하를 이끌어 내었다.
- 농협중앙회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이 경쟁입찰을 통해 비료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며 비료 값이 저렴한 비결인 만큼, 앞으로 농약 등 다른 영농자재에 대해 농업인과 농민단체를 비롯한 비료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구매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농자재 가격인하에 박차를 가하여 ‘농업인 부담 경감’이란 핵심가치(Core Value)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농협중앙회

■ 충북에서도 시설하우스 3모작 가능

- 시설하우스에 수박+단호박+감자·양배추 연중재배로 소득 35% 증대 -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차선세)은 충북 중부권에서 가온을 하지 않은 2중 비닐하우스 내에서 3모작이 가능하다고 밝혀 농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 시설하우스 3모작을 실시한 진천군 최연희 농가는 1년에 수박+단호박+감자와 수박+단호박+양배추를 재배하여 하우스 7동(1,260평)에서 54,000~56,000천원의 소득을 올려 일반 농가 2모작재배 보다 35% 정도 농가 소득이 증대되었다.
- 농가에 따르면 3월에 수박을 정식하여 수확한 후 6월 단호박을 정식한다. 단호박을 수확한 후 9월에 감자 또는 양배추 등을 정식하여 1월 현재 감자와 양배추를 수확 중이다. 이 농가는 도 농업기술원의 시범사업 농가로 2013년도부터 재배한 수박·단호박 등 생산 직거래를 통하여 일반 농가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로 금년에도 3모작을 물론 신선 업체류 등 재배할 계획으로 있다.
- 도 농업기술원 이상찬 원예기술팀장은 “지구 온난화에 따라 앞으로 시설하우스 3모작 재배 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충북에 맞는 시설하우스 3모작 작형 연구와 보급으로 FTA 대응 및 농가의 소득이 창출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충북농업기술원

■ 영농 현장의 어려움, ‘농사로’에서 해결하세요!

- 농촌진흥청, 농업 기술 정보 유통 허브 ‘농사로’ 새 단장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정부3.0에 맞춰 농업기술포털 서비스 ‘농사로’(http://www.nongsaro.go.kr)를 11일부터 새 단장한 내용을 선보인다.
- 농업기술정보 유통 허브 역할을 하게 될 ‘농사로’는 농업 연구 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농업 기술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최신 농업 소식, 기술 콘텐츠를 통합·연계해 한 번에 제공한다.

- 농업인과 도시민 등 고객의 관심과 접근성을 고려해 영농기술, 농자재, 농업경영, 교육, 지역정보, 생활 문화 6개 기술 유형으로 분류하고, 약 500만 건의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 누리소통망서비스(SNS)를 활용하는 선도농업인의 게시글과 민간포털의 농업 주요 현안 등을 실시간 수집·분석해 영농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 정보 서비스도 갖췄다.
- ‘농사로’ 검색 포털은 품종부터 유통·소비까지 영농 단계별로 12개의 관련 정보를 연계해 원하는 기술 정보와 연관성이 높은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또, 스마트 기기의 활용도가 늘면서 누구나 어디서든 ‘농사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서비스를 구축했다. 앞으로 농업인은 농업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농업 기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사로’에 수요자 관점의 현장 소통형 농업 기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에게 맞춤형 기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업기술포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단동 및 연동온실 스마트 기술 적용

- 스마트 온실이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언제 어디서나 작물의 생육환경을 점검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온실을 말한다.
- 스마트 온실의 모체인 스마트팜은 정보통신(인터넷)과 자동화 기술을 융합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농사 환경과 상태를 관측제어하고, 정보를 계량화, 객관화 하여 농업 생산과 유통·소비·농촌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지능화되고, 고효율화된 시스템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속가능을 지향하는 농업형태이다.
- 한국형 스마트 온실은 95% 이상이 비닐 온실이고, 이중 81% 이상이 선진국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시설이 열악한 소규모 단동온실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시설농업 시스템이다.
- 1세대 한국형 스마트 온실에 우선 적용될 기술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농업인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작물의 재배환경을 관측할 수 있고, 또 온실내의 기계나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만 하면 멀리 여행을 떠난 곳에서도 쉽게 온실 환경을 볼 수 도 있고 제어할 수도 있어 누구나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 단동 및 연동 비닐 온실에 적용되는 스마트 기술은 모든 유형의 온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형 모델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선택형 모델로 구분된다.

- 모든 스마트 온실에는 기본형 모델이 설치되며, 농가의 영농여건이나 농업인의 영농 목표 및 필요에 따라 선택형 모델을 적용하지 않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선택형 모델을 조합해 적용할 수도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부터 시설원예(비닐하우스) 환경제어 '스마트 그린하우스', IT융합 '과수재배 관리시스템', 양돈 사양관리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등 ICT융복합 모델(13종)을 1,280농가에 보급하였으며, 2017년까지 현대화된 온실 10,500ha의 약 40% 수준인 4,000ha에 스마트팜 보급 확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스마트 온실 지원 대상 농가는 내재해형 규격을 준수하고 전기 동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비닐하우스 등의 온실을 경영하는 시설원예 농업경영체(농가)로서 비닐하우스 5연동(또는 단동 5동)을 기본단위로 하며, 최소 적용 규모는 3연동 또는 단동 3동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단, 육묘·인삼채소·버섯·약용채소 등은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규모 제한을 예외로 하고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2016년 농업미생물 분양 개시

- 강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선)에서는 강화군 농축산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경영비 절감·생산성 향상·환경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4가지 종류의 농업미생물을 배양하여 매주 2회 공급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첫 분양을 시작하였다. 미생물 공급량은 2011년 66톤에서 지난 2015년에 170여 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에는 경종농가 394명, 축산농가 146명이 농업미생물을 활용하였다.
- 강화군에서 공급하는 미생물은 비료 및 보조사료로 등록되어 있는 유산균·효모균·고초균·광합성균이며 작물재배농가와 축산농가 모두 활용 가능하다. 농업미생물은 가축의 면역력 증가, 축사의 악취 저감, 작물의 뿌리 활착 증가 및 수량 증대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농가에서 적극 활용할 가치가 있다.
- 농업미생물은 분양을 신청한 강화군 소재의 농축산업인은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별로 1주에 40L까지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2016년에 농업미생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농축산업인은 농업기술센터 미생물배양실을 방문하여 분양신청서를 제출하고 매주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미생물을 수령하면 된다.
- 새해 첫 미생물 분양일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 분들의 기술센터 방문이 시작되었다. 강화군에서는 매해에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출처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 매운맛과 단맛의 조화, 재래종 고추 분양 시작!

- 도기술원 영양고추시험장, 수비초 등 재래종 고추종자 공개·분양 -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영양고추시험장에서는 고추 재배농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험장에서 육성한 재래종 고추 종자를 지난 1월 7일부터 공개 분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412,190립을 538농가에 분양한데 이어 올해에는 약 40만립의 고추 종자에 대해 사전신청을 받아 분양할 계획이다.
- 분양하는 재래종 고추종자는 수비초·칠성초 등 8품종으로, 매운맛과 단맛이 잘 조화되어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일반 고추에 비해 판매가격(43,000원/kg)이 2배 정도 높아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영양고추시험장에 따르면, 올해는 기존의 '수비초'(품종명 : 영고4호)와 함께 대과형 수비초인 '수미향'과 비가림 재배용 고색도 수비초인 '고은빛' 품종을 고추 주산지인 영양군·청송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선도농가에 우선 보급할 계획이며, 수비초 품종과 함께 순한 맛으로 고추껍질이 두껍고 색깔이 좋은 '칠성초'(품종명 : 영고5호), 매운맛이 강하고 색깔이 좋은 극조생종 '유월초'와 '토종'(품종명 : 영고10호, 영고11호) 등도 분양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 도 농업기술원 영양고추시험장 권오훈 장장은 "재래종 고추는 재배 지대가 낮은 경우, 바이러스 등 병에 약해 재배하는 곳이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소비자 선호도와 판매가격이 높은 품종이며, 앞으로도 새로운 고추 품종 육종과 재배기술 개발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영양고추시험장(054-683-1691)으로 재래종 고추종자를 분양 신청하면, 분양계약 조건 준수 시 소량의 종자를 분양받을 수 있다.

* 출처 : 경북농업기술원

■ 딸기 생산성 향상 현장컨설팅 강화로 해결

- 도 농업기술원 딸기시험장, 매월 현장기술 지원 추진 -

- 충남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 논산딸기시험장은 올해 운영기조를 '딸기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장애로 해결'에 맞추기로 하고 매월 1회 이상 현장기술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충남은 전국 딸기 재배의 37.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딸기 주산지로, 논산지역을 중심으로 딸기 농가가 밀집해 있다.
- 다만 딸기는 온·습도 등 하우스 내의 환경에 매우 민감하며 재배가 까다로운 데다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수경재배법 등으로 인한 환경관리 및 영양공급 등의 기술 정착이 필요한 작목이다.
- 이에 도 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 논산딸기시험장은 딸기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고자 매월 1회 정기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 올해 첫 현장컨설팅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부여와 청양 지역에서 열려 딸기 재배단지 수확기 품질향상을 위한 집중관리 방안에 관한 컨설팅이 실시됐다.
- 이번 컨설팅에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재배기술 현장지원, 재배농가 애로 민원해결을 위한 서비스 지원 등이 함께 실시돼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도 농업기술원은 정기적인 방문 외에도 병해충 피해가 심한 육묘기와 정식 직후에는 현장지도를 추가로 실시하여 병해충 발생을 차단하고 안정적 재배기술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도 농업기술원 남명현 농업연구사는 “딸기 재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진단과 처방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매월 정기적 방문 외에도 농가 민원 발생 시 즉각 출동하는 민원해결 팀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충남농업기술원

■ 농촌진흥청 개발한 농업기술 77개 파급효과 9조원 기대

- 신품종·영농·특허기술 경제성 분석 결과 발표.. 수요자 중심 기술개발에 활용 -
- 농업R&D사업으로 개발한 77건의 기술이 9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닌 것으로 분석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최근 3년간(2012~2014년) 농업R&D사업으로 개발한 신품종·영농기술·특허기술 중 주요기술에 대해 경제적 파급효과(77건) 및 기술사용료(기술거래 가치, 94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경제적 파급효과 및 기술사용료(기술거래 가치) 분석은 신품종(식량·원예·축산 분야), 영농기술, 특허 등 3개 분야에 대해 실시했다.
- 신품종은 제주 재래흑돼지를 활용한 육질형 흑돼지 ‘난축맛돈’, 최고 품질 신품종 벼 ‘현품’, 진한 과즙의 만감류 ‘탐나는 봉’ 등 28건이다.
- 28개 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41,352억원, 예상 기술사용료(기술거래 가치)의 합계금액은 206억원으로 산출됐다.

- 예로, 벼 4품종(삼광·하리아미·현품·새일미)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15,653억원, 예상 기술사용료(기술거래 가치)는 74억원이다.



성숙기



현미 및 쌀 모양



시장 유통쌀

- 사과 '아리수' 품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566억원이며, 예상 기술사용료(기술거래 가치)는 38백만원으로 산출됐으며, 실제 기술이전 계약건수도 늘었다.

- 경제적 파급효과 : 농산업체 등이 개발된 기술을 도입할 경우, 해당 산업뿐 아니라 다시 전·후방 산업의 생산 활동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
- 예상 기술사용료(기술거래 가치): 개발한 기술을 이전할 때 시장 적정 거래가격을 말하며, 농촌진흥청 개발기술은 대부분 농업인 등에게 무상 이전

- 영농기술은 '토양센서기술 기반 정밀농업기술', '살충 미생물제를 이용한 담배가루이 방제법', '찰옥수수 2기작 재배기술', '섬유질 강화 악취저감 사료' 등 31건이며, 31건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41,680억원, 예상 기술사용료(기술거래 가치)는 52억원으로 산출됐으나, 영농기술은 무상으로 기술이전을 한다.

- 예로, 뿌리근처의 토양환경 정보를 제공해 비료 및 물의 과다사용을 억제해 농가의 소득에 도움을 주는 ‘토양센서기술 기반 정밀농업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8,412억원, 예상 기술사용료(기술 가치)는 2.6억원으로 산출됐다.
- 특허는 ‘누에고치 실크단백질을 이용한 치과용 차폐막’, ‘품종인식 코드화 시스템’, ‘지열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냉난방시스템’ 등 36건이며, 파급효과는 18건에 2,367억원, 예상 기술사용료(36건)는 25억원이다.
- 예로, ‘실크단백질 치과용 차폐막’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1,256억원이며, 예상 기술사용료(기술거래 가치)는 3.1억원으로 산출됐다.
-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농업기술의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및 기술거래 가치 분석을 더욱 확대해 개발기술의 현장 확산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며 농산업 분야의 부가가치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올해는 기술이전에 관심 있는 농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거래 가치와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유망기술 거래설명회’를 개최해 기술이전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2014년부터 ‘농업R&D 경제성분석 강화방안’을 확립해 연구과제 기획 단계부터 보급 이후까지의 전 과정에 농업 R&D 사전·사후·추적 경제성 분석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배경에는 농업경영체에 경제성이 높은 기술도입을 유도하고, 생산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자의 연구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9. 정책 동향

◆ 전남도, 중국 지향 전남발전 기본계획 수립

- 국제교류, 관광, 농수산 수출, 투자 4대 분야 50개 과제 확정 -
- 전라남도는 12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대중국 현안과제 대응 TF회의'를 개최, 국제교류, 관광, 농수산 수출, 투자 4대 분야 50개 과제를 추진하는 '중국 지향의 전남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 이 기본계획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추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신창타이(新常態)시대 진입, 지난달 20일 발효된 한중 FTA 등 대내외 정책 변화에 대응한 도 차원의 중국 친화적 발전 전략이다.
- '중국이 찾아오는 활기찬 전남' 구현을 비전으로, 2018년까지 연간 '대중국 농수산식품 수출 1억불 달성'과 '중국 관광객 33만명 유치', '누적 투자기업 60개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를 위해 국비와 도비 등 947억 원을 들여 △중국지향 교류역량 확대강화 △중국 친화 관광경쟁력 강화 △농수산분야 협력을 통한 상생기반 구축 △투자유치 확대 및 인프라 구축 등 4대 분야 50개 과제를 추진한다.
- 분야별로 '중국 지향의 교류역량 확대 강화'를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의 '상호 교류의 해'를 운영해 우호교류 행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산시성과 새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교류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한·중 통합의학 교류 활성화와 청소년 상호 교류 확대, 해양 쓰레기 공동 대응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학생 결혼 이민자 문화센터와 초등학생 중국어 체험캠프 운영 등 상호 이해를 위한 활동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 ‘중국 친화 전남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인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과 전남 관광을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상품, 전남 3농 연수 관광상품과 휴양힐링 체험상품 등 차별화된 여행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중 해양교류역사 전시관’ 건립, 중국과의 역사문화적 인연유적 정비 등 대중국 관광 인프라도 확대 조성한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전남관광발전 종합계획’과의 연계 추진을 강화해 상호 보완과 시너지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 ‘농수산물 협력을 통한 상생기반 구축’을 위해 대중국 농수산물식품 수출 기반 조성 및 한·중 농수산물분야 기술협력 강화, 대중 수출 확대 지원 강화 등의 시책을 추진한다. 쌀·김치·삼계탕 등 전남이 강점을 가진 농식품의 중국 수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검역 실사에 적극 대응하고 중국식품박람회 참가, 판촉행사 개최 등 현지 마케팅을 강화한다.
- 현재 2개인 전남 농수산물식품판매장을 4개소로 증설하고, 중국 온라인 판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콰징통(跨境通)에 개설한 온라인 판매망도 3개소로 확대한다.
- 특히 중국의 독특한 검역통관 등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칭다오(靑島) aT물류센터에 전남상품관을 개설하고 통관 핸드북도 발간·배포한다.

-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고차가공 수산식품단지와 해삼 씨뿌림사업,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조성사업 등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농수산물 생산 인프라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 ‘투자유치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부가 농수산물가공식품 등 유망 산업과 도내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대규모 중화자본 유치, 목포-중국 간 해운항로 개설 등도 추진한다.
- 이날 TF회의에서는 △쌀·김치·삼계탕 중국 수출 전략 △관광개발 및 식품기업 중국 투자유치 추진 방안 △국제 크루즈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 △목포~중국 간 카페리 운항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전라남도는 이낙연 지사 취임 이후 ‘중국협력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6차례에 걸친 중국 방문을 통해 농수산물식품 수출, 관광협력 활성화 등 성과를 거둬 전국 지자체 가운데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장수철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은 “중국지향 기본계획은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의 조정과 연계를 통해 장기적 종합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과 실적을 평가해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2018년까지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라남도

◆ 2015년산 공공 비축 미곡 매입가격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은 2015년산 공공 비축 미곡 매입가격을 벼 1등급 기준으로 40kg 포대당 52,270원으로 확정하였다.
- 이는 '15년 수확기(10월~12월) 전국 산지쌀값 평균(152,158원/80kg)을 벼 40kg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이다.

< '15년산 공공 비축 미곡 등급별 매입가격 >

(단위 : 원/벼40kg)

등 급	특 등	1 등	2 등	3 등
포대벼	53,990	52,270	49,940	44,460
산물벼	53,141	51,421	49,091	43,611

※ 산물벼는 포대벼 매입가격에서 '포장비용(자재비+임금)'을 제외하고 지급

- 정부는 공공 비축 미곡 매입에 참여한 농가들에게 매입시 현장에서 지급한 우선지급금 52,000원을 제외한 차액인 270원을 지급할 계획(벼 40kg, 1등급)이다.
- 이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수확기 농가 경영안정 및 쌀값 안정을 위해 우선지급금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게 결정하여 매입가격의 대부분을 앞당겨 지급한 결과이다.
- 추가지급금은 1월 15일 농가별 개인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일괄 지급된다.
- 정부는 '15년 12월말까지 공공 비축 미곡 36만톤, 해외공여용 3만톤, 시장 격리곡 20만톤 등 총 59만톤을 계획에 따라 매입 완료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56.3만톤 대비 2.7만톤이 많은 수준이다.
- 한편, 농협 및 민간RPC는 정부 및 농협중앙회의 벼 매입자금 추가 지원(3천억원) 등을 활용하여 농가로부터 벼 매입량을 전년 대비 약 13만톤 확대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및 수출 활성화 방안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개별농가 농외소득 위주로 추진해 온 6차산업을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지역단위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농촌경제 및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전문경영체 육성을 통해 농업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자본 기술 활용, 기업과 상생협력도 적극 추진하여 성과 제고
- (농산물 생산 첨단화전문화) 전략품목 중심으로 '17년까지 스마트팜 4천ha(현대화 온실의 40%)를 보급하고,
 - 쌀 들녘경영체 확대(224개소→250) 및 밭작물 공동경영체 신규육성(15개소)을 통해 품질제고 및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
- (제조가공 및 식품산업 활성화)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6차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창업 및 디자인 판로자금 등을 지원하고,
 - 식품외식업체 등의 국산 농산물 사용을 확대('12:30%→'17:35)
- (유통효율화 및 수출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103개소→140), 포스몰 공영홈쇼핑 등 직거래 확대 및 농식품 유통산업을 육성하고,
 -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대중국 김치수출 확대를 위한 유통기한 연장기술 개발 및 통관기간 단축, 한류마케팅 등 추진
- (내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 2016~2018년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 온라인예약시스템(airBNB 등) 구축,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중화권 언론 집중 홍보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농촌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연계교통 프로그램 등 접근성 제고를 통해 내국인 농촌관광객도 더욱 확대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설 앞두고 축산물 유통 안전성 높인다

-‘전남동물위생시험소, 소·돼지고기 판매업소 등 안전성 검사-

-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전 축산위생사업소)가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는 설을 앞두고 소·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축산물 정밀검사에 나선다.
- 이번 검사는 전남 22개 시군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소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명절 제수용, 선물용으로 유통되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식육, 포장육을 시군 위생 점검반과 합동으로 설 연휴 전까지 무작위로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 주요 검사 항목은 한우 둔갑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 부패 위험여부, 보존료 사용여부, 일반 세균 수, 대장균 수, 식중독균(생고기) 등이다.
- 김상현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수거검사를 통해 축산물 유통업소의 안전 위생의식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해 건강한 명절을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로 축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2015년 전남에서 생산·유통되는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성분규격검사 1천 135건과 쇠고기유전자검사 481건을 통해 12건의 부적합(가공품 11, 한우유전자 1)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농식품부, '제4차('16~'20)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은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제고와 전문인력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차('16~'20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제4차 기본계획에는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주체 양성 등 5대 전략과제, 12개 중점과제, 48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실질적 양성평등,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 확대 및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영세·고령 여성농업인의 정책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10. 해외 농업정보

◆ 미국서 천연원료 사용한 농식품 인기 ↑

- 미국에서 인공첨가물을 최소화하면서 천연 원료를 사용한 식품들이 각광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알로에 음료·쌀과자 등 원재료의 특성을 잘 살린 우리 웰빙식품을 현지 소비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LA지사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언론 매체에서 인공색소가 들어간 식품들이 아이들 건강에 해롭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관련 제품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현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 이에 현지 스낵·음료 시장을 중심으로 인공색소 등 화학적인 첨가물 함량을 최소화하거나 함유하지 않은 제품 출시가 활발한 편인데, 실제 크래프트(Kraft)와 네슬레(Nestle), 켈로그(Kellogg)를 비롯한 글로벌 식품업체들이 주요 스낵과 음료, 냉동제품에 인공색소를 첨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는 등 화학첨가물 함유를 최소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aT LA지사는 쌀과자·유자차·알로에 등 인공첨가물 사용이 적으면서 천연재료 활용도가 높고, 해외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이미지로 알려진 우리 웰빙식품을 현지인들에게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특히 제품을 구입할 때, 주원료의 사용량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미국 소비자들이 늘고 있고, '화학 첨가물 무첨가'·'천연색소 사용' 등과 같은 특징을 포장 전면에 내세운 스낵들이 최근 들어 일반 제품과 비교해 판매량이 높은 점을 고려해, 현지에서 수출되는 쌀과자와 유자차·알로에음료 등을 중심으로 원재료 사용 비중이 높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또한 제품 포장 전면에 원재료 함량 비율을 강조하는 한편, '신선한 딸기에서 추출한 천연 색소를 사용한 쌀스낵' 등의 문구를 표기한다면 좋은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aT LA지사는 전했다. 이 외에도 온·오프라인 마켓과 연계한 판촉행사에서 쌀과 유자, 알로에 등의 천연원료가 갖고 있는 영양·기능적인 장점을 현지인들에게 중점적으로 홍보해, 우리 제품을 웰빙식품으로 인식시키는 노력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 미국, 무살균 원유 활용 치즈 안전성 논란 가중

- 미국 치즈업계에서 무살균 원유를 활용하여 생산한 치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이 같은 논란은 지난 8월 미국 식품의약청이 원유 활용 치즈에 대해 식품 유래 질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검토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됨.
- 이에 대해 생산단체들은 일반 유제품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원유로 생산한 치즈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음.

- 이들 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원유로 생산된 치즈와 관련된 식품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40년간 숙성된 치즈 섭취와 관련된 사망 사고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 오히려 기존의 살균된 일반 치즈와 관련된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음.
- 또한 식품의약청이 제시하는 원유로 생산된 치즈와 관련된 사고는 모두가 숙성되지 않은 치즈와 관련된 것으로 이들 제품은 현재 관련법에 따라 판매가 금지된 제품들이라고 밝히고 있음.
- 이들 단체들은 대부분의 유제품 관련 식품사고가 가공처리 과정보다는 유통과정 오염에서 비롯된 것으로 풍미가 있고 영양이 풍부한 원유로 생산된 치즈의 생산 판매에 정부 규제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 출처 : 세계농업

◆ 온라인으로 농식품 구매하는 일본 노년층 증가

-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구매하는 일본의 노년층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현지에서 인지도가 높은 홍삼 등 우리 건강식품을 앞세워 온라인 구매에 관심 높은 현지 노년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오사카지사가 최근 발표한 '일본 식품 통신판매 시장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온라인 식품 시장 규모는 지난 2010년 2조 3,543억엔(22조 8,425억원)에서 2012년 2조 8,065억엔(27조 2,360억원), 지난해 3조 1,772억엔(38조 2,678억원)을 기록하며 연평균 5~10%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 실제로 병원성 대장균 'O157'에 오염된 햄버거 분쇄육의 판매가 1994년부터 금지됐지만, 매년 수 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O157'균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음.
- 더욱이 최근에는 마트에서 식품을 구입하고, 구매한 물건을 집으로 가져오는데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는 일본의 노년층들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식품을 구매하는 방법을 습득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구매하는 노년층이 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주로 노화방지·면역증진 등에 좋은 건강식품 위주로 구입하는 경향이 높은 편.
- 때문에 aT 오사카지사는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구매하는 일본의 노년층이 더욱 증가할 것을 감안해, 이들 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우리 건강식품의 현지 온라인시장 진출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특히 aT 오사카지사는 우리 건강식품 중 인지도가 홍삼농축액·홍삼드링크 등 현지 취향을 고려한 홍삼가공품을 비롯해 우리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복분자 등 웰빙과실을 함유한 기능성 음료와 흑마늘 등 진출 품목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제품 원료 및 효능과 관련된 설명을 꼼꼼히 따지는 노년층의 특징을 고려해 제품 특징 및 영양성분 등의 정보를 상세히 게재해야 하며, 온라인 쇼핑몰의 배너광고 등 홍보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 출처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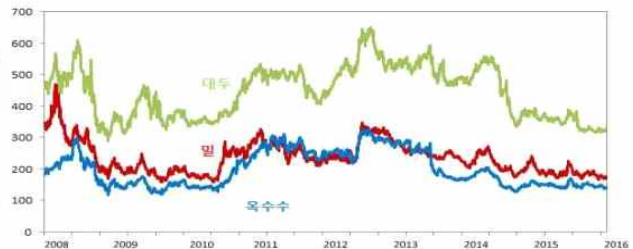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01. 18.(시카고 선물거래소)

연휴 앞두고 숏커버링세에 밀, 옥수수가격 상승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6.1.15)	전일대비	전월평균 ('15.12)	2015 평균
밀	174.02	▲1.1%	174	186
옥수수	142.99	▲1.5%	145	148
대두	322.97	▼1.9%	323	347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3월물, 대두: 3월물) 정산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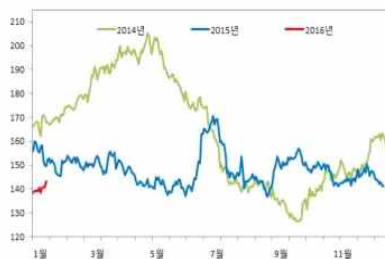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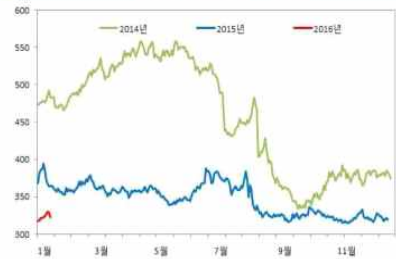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마틴루터킹데이 연휴를 앞두고 숏커버링세가 물리며 2거래일 연속 하락세에서 반등에 성공함. 연휴이후 130,481 계약에서 조금 절감된 112,767 계약이 순매도할 것으로 전망됨. 전 세계 밀 풍작과 수출 수요 부진은 지속적인 밀 선물가격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프랑스 재고량 증가 전망 및 유가 하락은 가격 상승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연휴를 앞두고 기술적 숏커버링세 영향으로 상승 마감함. 미국원자재선물거래소는 장마감후 투자자들이 화요일부터 약 240,000 계약을 순매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함. 남아프리카의 가뭄으로 500~600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할 것으로 남아공 농림부 장관 Senzeni Zokwana는 전망.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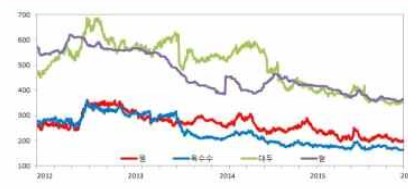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1월말 마감에 상당한 거래물량에 하락한 대두박의 압박을 받으며 하락함. 추가하락과 배럴당 30달러 미만으로 하락한 국제유가, 전세계적 대두 풍작 또한 대두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짐. 중국 경제 성장부진 우려 또한 대두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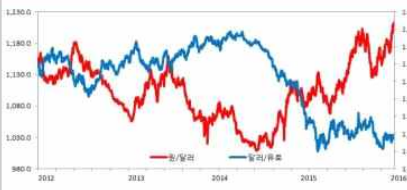
관련동향

- 미시시파강 항해 제한으로 밀, 옥수수, 대두 공급마저 제한
- 국제유가는 이란 공급 증가 우려, 주요국 경기지표 악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197	▼1.5%	환율	원/달러	1,212.7	▲0.5%
	옥수수	166	▲0.6%		달러/유로	1.0862	▼0.2%
	대두	357	▼2.2%	국제유가 (US\$/B)	WTI	29.42	▼5.7%
	쌀	364	-		Dubai	26.22	▲0.7%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2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1.14(수출가격), '16.1.15(환율), '16.1.15(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11.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2016년 농식품 창업가 양성과정 운영 수강생 모집

- 1월 29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신청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농식품 분야에서 특허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려는 농가 및 법인의 창업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농식품 창업가 양성과정 수강생 40명을 1월 29일까지 모집한다.
- 그동안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e-비즈니스 리더양성 과정을 보완하여 농식품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였다.
- 이번 과정에서는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운영한다.
- 수강 신청자격은 전라남도에 거주한 농업경영체로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e-비즈니스 리더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영체 및 재무재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농업법인이다.
- 농식품 창업가 양성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 경영체는 29일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 합격자는 농업기술원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의 독창성, 합리성, 창업마인드를 심사하여 선정하고, 합격통지는 2월 5일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교육과정은 16일간 실시되며 주요내용은 트렌드의 변화, 창업지원 제도 및 기관, 사업기회 포착, 시장분석, 기술탐색, 기술보호(지식재산권), 사업계획서 작성, 기업가 정신, 기술의 발전 동향, 제품개발, 상품화, 마케팅전략, 기술금융이용, 협상의 기술 등 이다.
- 수강생에게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문컨설턴트에 상품 및 브랜드 개발, 자금알선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김성일 원장은 “농업 경영체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하고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식품 분야 창업을 적극 확대”해 간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2016년도 전남생명농업대학 신입생 선발

- 청년창업, 약용작물, 유통·6차산업반 등 3과정 75명 모집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도정 역점시책인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하고 창조적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핵심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2016년도 제12기 전남생명농업대학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말했다.
- 교육 과정은 청년창업(25명), 약용작물(25명), 유통·6차산업반(25명) 등 총 3개 과정으로 인원은 총 7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3월부터 12월까지 25일간 창업 및 유통과 관련한 분야별 전문교육을 비롯하여, 저비용·고소득의 최신농업기술과 소양교육, 도정 주요시책 등 다양한 교과 과정을 편성·운영하여 추진한다.

- 특히, 민선 6기를 맞아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건설을 위하여 추진하는 청년창업 과정은 만 45세 이하의 가업승계농,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상품개발, 유통 및 창업설계 등 분야별 맞춤형 전문교육을 운영하여 전라남도의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청년농업CEO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1월 말까지 접수하면 된다. 교육생 선발은 자격요건 등 면접을 실시하여 결정하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2월 19일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 전남생명농업대학은 지난해까지 11기 68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업단지 대표, 메신저, 명예감시요원, 전남 역대 부농 선발 등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www.jares.go.kr), 전남 농업기술원농업교육과(061-330-2732)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농업전망 2016 발표대회” 개최

- 급변하는 농업·농촌, 내일을 기획 -

○ 농업전망 2016 발표대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하고자 개최한다.

○ 대회에서는 ‘글로벌 시대의 농업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농식품 시장변화와 창조농업’,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이슈들과 주요 농림축산물 및 식품에 대한 ‘중장기 수급전망’을 발표할 계획이다.

○ 전국 권역별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 충청권 1월 22일(금) 충청남도농업기술원(충청남도 예산군)
- 호남권 1월 26일(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전라남도 나주시)
- 영남권 1월 28일(목) 경상남도농업기술원(경상남도 진주시)

<호남대회 발표주제>

구 분		주 제	발표자
공통과제 발표(13:40~14:20)			
13:40~14:00	20	2016년 농정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농식품부
14:00~14:20	20	2016년 농업·농촌·농식품 전망	KREI
16:20~16:40	20	종합토론	
호남권 품목전망 발표 및 토론(14:30~17:00)			
14:30~14:55	25	곡물 품목전망 발표 및 질의응답	김태훈
14:55~15:20	25	과일·과채 품목전망 발표 및 질의응답	박기환
15:20~15:40	20	엽근 품목전망 발표 및 질의응답	최병옥
15:40~16:00	20	양념채소 품목전망 발표 및 질의응답	송성환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6년 재배할 벼 정부 보급종 신청 접수!

-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새누리벼 등 3,477톤 공급계획 -

□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조일호)은 2016년도에 재배할 벼 보급종 공급계획량 3,477톤을 공고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종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 종자는 우선공급업체 846톤을 제외한 8개 품종 3,477톤으로 새누리벼 1,440톤, 일미벼 38톤, 새일미벼 789톤, 신동진벼 105톤, 황금누리 572톤, 미품벼 151톤, 운광벼 142톤, 동진찰벼 240톤이다.

○ 신청된 종자는 2016년 1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우선공급업체 또는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올해 등숙기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공급계획량을 확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가에서 종자부족을 염려하여 과도하게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하였다.

□ 기타 보급종 종자 신청·공급과 관련된 사항이나 종자 품종별 특성 등 문의 사항은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061-322- 3971)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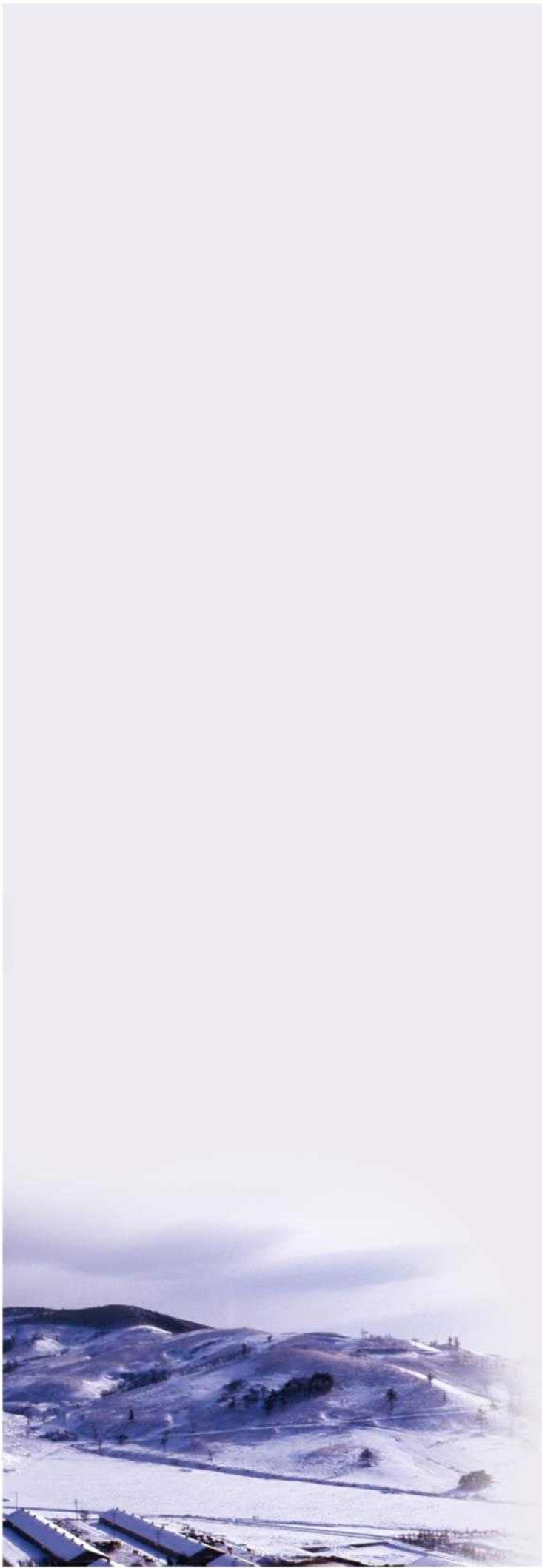
* 출처 : 국립종자원

◆ 디자인박람회조직위, 개최지 나주에 새 동지

- ‘친환경’, ‘디자인’ 소재 접목한 새 비전 제시 위해 동분서주 -

-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이 박람회 개최 5개월여를 앞두고 개최지인 나주로 사무실을 옮겨 본격적인 준비활동에 돌입했다.
-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는 ‘친환경’과 ‘디자인’이라는 두 소재를 접목해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오는 5월 나주에 위치한 농업기술원과 빛가람 혁신도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 조직위는 사무국을 이전하면서 기존 2부 6팀이었던 조직을 나주시로부터 공무원 2명을 파견 받아 2부 7팀(지역협력팀 추가)으로 확대하고, 조직위와 나주시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강화키로 했다.
- 박람회 총감독단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총감독을 맡았던 고석만 총감독과 뮤지컬 ‘명성황후’를 세계적으로 히트시킨 유희성 공연감독, 정재진 영상감독, 박동우 무대감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친환경 디자인박람회의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조직위는 행정적 실행력을 바탕으로 총감독단의 그림을 현실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는 농수축산물, 패션, 건축, 심지어 전 세계인의 삶에 이르는 모든 분야를 친환경적으로 재창조, 재디자인한다. 박람회장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도입부 ‘쪽빛 바닷길’과 브리지형태의 야외 전시공간 ‘빛과 바람의 울림 길’을 지나 천연염색관, 자연자원관, 디자인스쿨, 남도관 등 7개의 관을 지나면서 전라남도의 친환경자원부터 세계의 디자인제품, 친환경디자인산업의 미래까지 공유하고 체험하게 된다.
- 유영관 조직위 사무국장은 “그 동안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논의했던 부분들을 현실화해 박람회 관람객들에게 상상 이상의 전시공연무대를 보여주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주간

전남농업정보

69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